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4호 [루게 제24677호] 주제 103(2014)년 9월 21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근로자들에게 감사라 보내시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유혹을 받들어 청천강을 보배강, 전기강으로 전변시키는데 기여할 일념으로 평양과학기술대학 부원 최원익은 많은 후방물자를 발전소건설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당의 대자연계조수상을 받들고 돌격대에 탄원한 중앙은행 로동자 한은순은 들끓는 전투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10여치의 지원으로 대중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김관유병원의 의사 임송이, 보건성 구강종합병원의 의사 한은주는 현장의 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건설자들의 생활에 친혈육의 정을 기울였다.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온 대성구역청소년체육학교 로동자 박은희는 돌격대에 망라되어 헌신하고있으며 지원사업소 잘하였다. 모란시도공장 로동자 김수향은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건설자들을 성의껏 도와주어 공

사를 다그치는데 기여하였고 건설전제공업 산하단위 부원 전혜정도 후방사업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우는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평양강화차대 수리공 홍성철은 건설에서 위훈을 떨치면서 지원사업에 온갖 성의를 다하고있다. 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간 첫날부터 로터쿱에 앞장 서고있는 신의주시보육원학교 교원 김혜영, 평양시도대 상업관리처 직물도매소 로동자 리영희, 형제산구역원림사업소 로동자 김광준은 돌격대원들을 고무하는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였다.

보통구역역 대보통 42인민반 김향미, 서성구역 서천동 41인민반 위영실, 북창군출판물보급소 부원 최영애는 건설자들과 함께 일하는 심정으로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 근로자들은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편지를 높이 휘날리며 나아가는 우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인터넷에 게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8월 20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

렸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대영광을 높이 휘날리며 나아가는 우

【조선중앙통신】

선군혁명사에 빛나는 백두산녀장군의 영웅적위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뜨거운 9월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백두산녀장군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더해주고있다.

주제 24(1935)년 9월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신것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서 총과 함께 역사를 써내려간 녀성혁명가의 영웅사사를 아로새기신 불멸의 생애에서 가장 의의깊은 사변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처참즈의 하늘에 높이 휘날리는 붉은기양에서 무기를 수여받으시며 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손에서 총을 놓지 않으신 신념의 맹세를 다지신 때로부터 항일혁명전쟁의 전기간 빛나는 전투위훈을 세우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 몸통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대전의 나날에 시난차전투, 서강전투, 장백전투, 20도구전투, 반질구전투, 생산자전투, 대홍전투, 울기강전투, 백초구전투를 비롯하여 수백회에 달하는 전투에 참가하시어 특출한 무공을 떨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원수적멸의 피 어린 격전장마당에서 혁명의 사령부 우위의 총성을 울리시었다. 위기일발의 순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몸으로 막아나서시며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신 대사하지기전투를 비롯하여 잘록목전투, 홍기하전투, 홍두산전투, 단강부근전투 등은 수령결사옹위를 삶의 전무후무한 녀성혁명가의 영웅사사를 아로새기신 불멸의 생애에서 가장 의의깊은 사변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많은 전투들에서 유격대원들과 반일자위대, 백발백중의 사격술, 뛰어난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승리의 물과구를 열어놓으시었다.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처음 기를 수여받으신 처참즈구역구방위군투에서부터 명성을 떨치시었다. 주제24(1935)년 10월에 있던 처참즈구역구방위군전투는 불과 100여명의 유격대원들과 반일자위대, 청년의 용공 대원들이 무려 1만여명에 달하는 일제의 《토벌대》를 싸워 승리한 전투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전투에서 정황에 따라 적의 약한 고리를 제법으로 포착하시고 적들을 수세에 몰아 넣을수 있는 명안을 내놓으시면서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시었다. 김정숙동지의 명활한 지략은 그 후 적들의 무모한 공격술을 역리용하시어 순전에 무리죽음을 안긴 내도산일대에서의 전투들을 비롯하여 많은 전투장소에서 남김없이 파시되였다.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백발백중의 신묘한 사격술로 항일전

의 크고작은 전투들에서 빛나는 전과를 이룩하시었다.

주제25(1936)년 8월 무송현선전투 때 싸장을 향손에 쥐시고 순식간에 10여명의 적병을 쓸어버리시였으며 주제26(1937)년 2월 홍두산전투에서 40명의 적을 명중탄으로 잡으신 사실은 항일대전에 특기할 전투일화로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격술로 내도산전투, 안도현 2도강부근전투 등 원수들과의 결전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우시었다.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으로 원수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전투승리에 크게 공헌하신 김정숙동지의 무훈은 주제27(1938)년 춘기대반전전에서 두루뎛이 발휘되였다.

이 전투에서 김정숙동지께서는 희생된 전투들의 복수를 위하여 용맹을 떨치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금반지표창을 수여받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제28(1939)년 6월 울기강전투에서도 창적전을 벌리시어 백두산녀장군으로서의 영웅적개를 남김없이 떨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전투에서 정황에 따라 적의 약한 고리를 제법으로 포착하시고 적들을 수세에 몰아 넣을수 있는 명안을 내놓으시면서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시었다. 김정숙동지의 명활한 지략은 그 후 적들의 무모한 공격술을 역리용하시어 순전에 무리죽음을 안긴 내도산일대에서의 전투들을 비롯하여 많은 전투장소에서 남김없이 파시되였다.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백발백중의 신묘한 사격술로 항일전

들을 우리 인민들은 오늘날 잊지 못하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여러 전투들에서 능숙한 화포로 적들을 왜해시켜 전투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시었다. 대담부쌍한 대적정치사업으로 적군을 왜해시켜 전투승리를 이룩하신 미의하부근전투, 화포를 들이대어 적들을 제압하신 신대자전투는 적군과 해사업의 능수로서 김정숙동지의 솜씨와 용맹을 잘 보여주었다.

하기에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김정숙동지를 《백두의 녀장군》, 《항일의 녀성영웅》으로 사랑과 존경을 담아 부르게 되였으며 국내의 각지에서는 《백두산녀장군》, 《항일녀장군》의 무훈담을 전하는 새 노래를 건설들이 날개돋힌듯 퍼져나갔다.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에 수놓이진 백두산녀장군의 불멸의 위훈은 세기를 이어 높이 날리는 선군의 붉은기에 력력히 어려있으며 후손만대갈 영원히 추억하고 끝없이 전해갈 위대한 혁명적업적으로 주제 28년 선군혁명사에 펼쳐져 빛나고있다.

태양의 빛날이 되시어 주제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백두의 전설적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은 천만대의 심장속에 길이 간직될것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가는 내로동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자

5월1일경기장개건보수공사 마감단계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거창하게 벌어지는 5월1일 경기장개건보수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경기장의 축기공과 특상주조를 비롯한 체육보장시설개건보수공사 마감단계에 이르고 판관사바다보수 및 등반의자설치기 기본적으로 끝났다. 방대한 면적의 지붕보수와 선수대기실 및 감동실들을 비롯한 다양한 용도의 방들과 훈련장을 포함한 경기장의 전반적인 건물내부공사도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지금 경기장주변의 도로포장과 승강기, 공기조화기를 비롯한 운영 및 봉사설비들을 조립하거나 마무리작업이 한창이다.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5월1일경기장이 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체육시설의 상징으로 그 자태를 확연히 드러내게 된 성파는 당의 구상과 결실을 실현으로 만드는 군인들과 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의 고결한 충성과 애국헌신이 일컫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에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을 자랑하는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쾌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5월1일경기장개건보수공사는 그 넓은 폭역지붕과 투라스, 판관사 등 부속을 비롯한 모든

대상의 시공이 어렵고 작업량도 방대한 건설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처럼 큰 규모의 경기장개건보수공사를 국가적인 힘을 넣어 짧은 기간에 위대하게 해주시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지난 6월에는 건설의 불바람이 휘몰아치는 이곳을 찾으시어 공사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개건공사를 다그치는데 나서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치말씀과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높이 받들고 현장직투에서는 군인혁명투쟁의 위력으로 전방공사를 립체적으로 내밀기 위한 총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공사기간 현장들에서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사상전의 포성이 힘차게 울려 퍼졌다. 지휘부의 일꾼들은 자재보장에 힘을 넣으면서 모든 불감위들이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맑은 공사를 대상별, 날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공사에 참가한 여러 단위 군인들과 건설자, 돌격대원들은 맑은 파제를 최단기간에 질적으로 수행할 불같은 일념을 안고 당의 사상전열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였다.

조선인민군 박승철소속부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 군인건설자들이 시간을 주름잡으며 폭풍처럼 내딛는 백두산녀장군의 기상을 지랑스럽게 떨치였다. 현장들에서 경제선봉과 공경

별, 작업조별에 따르는 사회주의경쟁이 활기있게 벌어졌다. 박승철소속부대에래 현승철소속부대에래 비롯한 시공단위 전투원들은 선수출입구로 통하는 활주대로 삼고 어려운 공사과제를 원만히 수행하고있다.

전방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른 지금은 선수출입구로 통하는 활주대로 삼고 어려운 공사과제를 원만히 수행하고있다. 전방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른 지금은 선수출입구로 통하는 활주대로 삼고 어려운 공사과제를 원만히 수행하고있다.

한편 중앙난방건설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기술자, 로동자들은 시공단위와 협동하여 각종 뿔프름과 공기조화기, 승강기와 전기보장시설을 비롯한 설비조립과 시운전작업에서 창조적열정을 발휘하고있다.

여러 성, 중앙기관들, 편관단위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혁명적 열의속에 마감자세들이 보장되는 현장으로는 아간지원청년돌격대원들과 평양시안의 녀성돌격대원들이 매일같이 달려와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가 펼쳐지는 벅찬 현실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있다.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 높이 마감공사장들을 확대하고 있는 군인들과 건설자, 돌격대원들의 혁명적열의속에 5월1일경기장에서 공사완공의 한성이 리저용으로 남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지원 철

남포시의 협동농장들에서 가을걷이에 머뭇거리지 않고 전방에 전진

남포시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벼가을걷이전투에 일제히 진일하였다.

시의 각 구역, 군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애써 가운 낱알을 제때에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고 씨해 출해농사를 빛나게 계속할 때 높은 열의에 넘쳐서 작년부터 가을걷이전투를 본태에 그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 농촌리대발표 50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농사를 잘 지어 당과 국가가 기대하는 알곡생산과제를 기여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강병이 가을걷이에 계속 박차를 가하면서 벼가 익는속도 제때

에 거두어들이도록 조직적사업을 짜고들었다. 시농촌경제위원회에서는 벼가을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확고를 정확히 판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각 협동농장들에서 트랙터, 벼종합탈곡기 등에 대한 수리정비를 예결성적으로 진행해 주종농기구 준비를 다그치도록 하였다.

특히 공장, 기업소들에서 수백대의 이동식탈곡기를 생산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도록 함으로써 낱알의 허실을 막고 낱알탈기를 기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시농촌경제위원회를 비롯한 농업부문 지도일꾼들은 유해농사를 잘 계속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가 벼가을전투를 책임적으로 지휘하고있다.

백두산절세 위인들의 기록한 발자취가 뜨겁게 새겨져있는 평도업적단위들이 벼가을걷이전투의 앞장에서 기세충격 나아가고있다.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천리마구역 고창협동농장, 온천군 운하협동농장, 안성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알곡추출으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평도업적을 빛낼 열의를 안고 당당한 벼가을실적을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통강군, 강서구역, 천리마구역 협동농장들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농사의 주인된 높은 자각을 안고 벼가을과 벼만개들이기, 낱알탈기를 동시에 진행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는벼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온천군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필치별로 수확고 판정을 정확히 한데 기초하여 벼가을순차를 바로 정하고 잘 익은 포전부터 벼가을을 벌이면서 나게 다그치고 있다.

향구, 와우도, 대안구역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력량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벼가을걷이전투를 다그치는 한편 가을남새비배 관리에도 높은 관심을 돌려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실 뜻깊고 있다.

또한 높은 열을 높은 알곡생산선과 빛내이려는 남포시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마감단계에 들어선 강병이가을걷이와 함께 벼가을성파는 날로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18종에 수만대의 농기계 창안도입

당의 농업정책과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올해에 들어와 18종에 수만대의 농기계를 창안도입하여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높임으로써 농업생산에 이바지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시대,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계몽농업대학에서 농업전진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내세운 당의 승전뜻을 받들고 종합도양관리기계를 창안도입하였다. 이 농기계를 연로를 적게 쓰면서 소량의 특성을 파괴하지 않고 논밭갈이를 보다 능률있게 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대중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창안도입한 농기계를 창안도입하여 실전에서 그 우월성을 확증하였다. 숙천군 백암농장의 이동식벼탈곡기는 어디서나 쉽게 만들수 있고 낱알탈기의 질과 속도를 높일수 있는것으로 하여 농업근로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안주시 농기구공장의 이동식벼탈곡기도 현장에서 그 성능이 충분히 발휘됨으로써 인구를 끌었다.

안주시 원흥협동농장의 풍종자선별기, 대동군 고산협동농장

의 풍종자선별기, 대동군 고산협동농장의 벼가사화한 모내는기계를 비롯하여 많은 농기계와 농기구들이 올해농사에서 한 몫하였다.

평안남도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일관성있게 벌리는 과정에 많은 농기계를 창안도입하여 실전에서 그 우월성을 확증하였다. 숙천군 백암농장의 이동식벼탈곡기는 어디서나 쉽게 만들수 있고 낱알탈기의 질과 속도를 높일수 있는것으로 하여 농업근로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안주시 농기구공장의 이동식벼탈곡기도 현장에서 그 성능이 충분히 발휘됨으로써 인구를 끌었다.

안주시 원흥협동농장의 풍종자선별기, 대동군 고산협동농장

의 풍종자선별기, 대동군 고산협동농장의 벼가사화한 모내는기계를 비롯하여 많은 농기계와 농기구들이 올해농사에서 한 몫하였다.

평안남도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일관성있게 벌리는 과정에 많은 농기계를 창안도입하여 실전에서 그 우월성을 확증하였다. 숙천군 백암농장의 이동식벼탈곡기는 어디서나 쉽게 만들수 있고 낱알탈기의 질과 속도를 높일수 있는것으로 하여 농업근로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안주시 농기구공장의 이동식벼탈곡기도 현장에서 그 성능이 충분히 발휘됨으로써 인구를 끌었다.

안주시 원흥협동농장의 풍종자선별기, 대동군 고산협동농장

의 풍종자선별기, 대동군 고산협동농장의 벼가사화한 모내는기계를 비롯하여 많은 농기계와 농기구들이 올해농사에서 한 몫하였다.

평안남도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일관성있게 벌리는 과정에 많은 농기계를 창안도입하여 실전에서 그 우월성을 확증하였다. 숙천군 백암농장의 이동식벼탈곡기는 어디서나 쉽게 만들수 있고 낱알탈기의 질과 속도를 높일수 있는것으로 하여 농업근로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안주시 농기구공장의 이동식벼탈곡기도 현장에서 그 성능이 충분히 발휘됨으로써 인구를 끌었다.

안주시 원흥협동농장의 풍종자선별기, 대동군 고산협동농장



사회주의 건설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립학락 찍음

다리들과 그 주변이 완전히 변모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평양시를 본보기로 잘 꾸리고 지방도시들도 그렇게 꾸려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면 온 나라를 사회주의 선경으로 전변시킬수 있습니다.》

최근 수도의 모든 다리들과 그 주변이 훌륭히 변모되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한달동안에 10만㎡에 달하는 시안의 다리밑과 그 주변이 깨끗이 정리되고 특색있는 공원이 건설되었으며 다리들의 관광도색사업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안의 다리밑을 보수정리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수도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킬데 대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시당위원회에서는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다리밑을 보수정리하는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적사업을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와 시민위원회 일군들은 구역, 군들에 내려가 책임일군들과 함께 현지답사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모든 다리들의 밑부분보수와 지대정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힘있게 내밀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우선 충성의 다리, 락랑다리, 봉화다리밑 부분을 보수하고 빠른 시일에 다리밑지대정리를 끝낸 다음 새 공원을 꾸리기 위한 준비를 일으켰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락랑, 선교, 력포구역에서는 수만㎡에 달하는 충성의 다리와 락랑다리밑부분보수와 지대정

리를 끝내고 공원과 문화휴식터를 꾸리기 위한 사업에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구역에서 치열한 투쟁을 벌인 결과 충성의 다리와 락랑다리밑이 짧은 기간에 깨끗이 정리되었고 공원과 문화휴식터가 훌륭히 건설되었다.

모든 구역에서는 한주일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봉화다리의 방대한 토량을 처리하고 지대정리를 붙이 번쩍 나게 다그쳐 끝내는데 이어 화초공원을 방불케 하는 훌륭한 공원을 꾸려 놓았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구역, 군들에서 짧은 기간에 모든 다리밑과 철길주변정리를 끝내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시안의 철길과 주요거리들을 횡단하는 다리들은 물론 고속도로, 판방도로, 중요도들을 연결하는

다리들의 부분미장도 밀포장, 강철타라스와 란간들의 도색이 전부 끝났다. 그리고 케블정리와 지피식물심기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는 성과도 이룩되었다.

한정구역에서는 철길기간이 길고 다리가 많은 조건에서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결사투쟁의 정신을 지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다리밑정리는 물론 철길조소들과 철길주변 살림집들에 대한 보수공사를 한

주요동안에 해제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성구역의 일군들은 건설한 지 오래된 다리보수를 첫째가는 대상으로 정하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강철타라스, 케블정리, 철길주변 철물타라스도색을 끝내고 지대정리를 번듯하게 해놓았다.

특히 모란봉구역에서는 구역

정입 다리 밑의 이채로운 풍경

장, 미니골프장, 덕수터까지 꾸려놓아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형제산구역에서는 철길기간이 길고 다리가 많은 조건에서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결사투쟁의 정신을 지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다리밑정리는 물론 철길조소들과 철길주변 살림집들에 대한 보수공사를 한

주요동안에 해제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성구역의 일군들은 건설한 지 오래된 다리보수를 첫째가는 대상으로 정하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강철타라스, 케블정리, 철길주변 철물타라스도색을 끝내고 지대정리를 번듯하게 해놓았다.

특히 모란봉구역에서는 구역

정입 다리 밑의 이채로운 풍경

안의 다리보수를 단번에 위약

단 해제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모두가 떨쳐나 한주일만에 구역의 모든 다리들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평천, 력포구역과 강동군을 비롯한 다른 구역, 군들에서도 다리보수와 지대정리를 끝내며 그 면모가 완전히 일신되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수복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수복



봉화 다리 주변에 새로 꾸려진 공원



정입 다리 밑의 이채로운 풍경

우리 남자 축구 선수들 남조선팀을 라승, 영예의 1위를 쟁취

2014년 아시아축구연맹 16살미만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팀이 2014년 아시아축구연맹 16살미만 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1위를 쟁취하였다.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타이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16개 나라와 지역의 팀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대회는 4위에서 든 팀들이 아시아를 대표하여 2015년에 진행되는 국제축구연맹 17살미만 월드컵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되는것으로 하여 아시아축구계의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우리 팀은 조별리그 3조에서

속하여 쿠웨이트, 우즈베키스탄, 네덜란드와 경기를 진행하였는데, 3경기 모두 승리하여 9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경기장에 나선 선수들의 가슴가슴은 기어이 승리하여 어머니조국에 기쁨의 보고를 드릴 일념으로 가득차 있었다.

결승경기는 먼저 실점당한 상대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자신만만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 드센 공격을 들어대었다.

경기시간 52분경 7번 박영관선수가 차이차기로 멀리 넘겨준 공이 상대팀 골문구멍으로 들어오자 9번 한광성선수가 잡아 멧있는 득점으로 이어놓았다.

우리 선수들은 팀의 전술적 의도를 잘 살리면서 좌우측면 돌파와 역습공공으로 경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남조선팀을 연속 수세에 몰아넣었다.

또다시 경기시간 66분경 우리 팀의 10번 최성현선수가 남조선팀의 방어가 놓친 공을 팔로네 구석으로 강하게 차넣으면서 그대로 그물에 걸렸다.

남조선팀은 잃은 점수를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잘 짜인 공격과 방어를 결합하며 승리의 신심에 넘쳐 경기를 운영하는 우리 팀을 당해낼 수 없었다. 결국 우리 나라 팀은 2:1로 남조선팀을 이기고 우승의 단상에 오르게 되었다.

수많은 팬관객들이 승리한 우리 선수들에게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며 축하해주었다.

우리 나라 팀은 우승함으로써 2015년에 진행되는 국제축구연맹 17살미만 월드컵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남조선팀은 잃은 점수를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잘 짜인 공격과 방어를 결합하며 승리의 신심에 넘쳐 경기를 운영하는 우리 팀을 당해낼 수 없었다. 결국 우리 나라 팀은 2:1로 남조선팀을 이기고 우승의 단상에 오르게 되었다.

수많은 팬관객들이 승리한 우리 선수들에게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며 축하해주었다.

우리 나라 팀은 우승함으로써 2015년에 진행되는 국제축구연맹 17살미만 월드컵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 조별리그전 소식

우리 나라 팀 승자전 단계에 진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 조별리그전 3조에 속한 우리 나라 팀과 중국 홍콩팀사이의 경기가 20일에 진행되었다.

첫 경기에서부터 우세를 보여준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은 이날 경기에서도 전술적으로 이종일 감독의 지휘를 받들어 83분경에 9번 선수 가 종정현으로 1골을 넣는 승리를 거두었다.

경기시작 7분경 공격마당 왼쪽으로 공을 몰고 들어가던 11번 선수 가 문앞으로 넘겨준 공을 13번 위정심선수가 돌입하면서 단번에 차넣어 골문을 열었다.

후반전에 들어서도 우리 팀의 파도식공공이 계속되는 속에 경기시간 57분경과 64분경에 11번 리예경선수가 멧있게 연속 득점하였다.

이날 경기에서 미더운 우리 여자축구선수들

격예로의 재빠른 이동 등 다양한 축구기술을 보여주면서 중국 홍콩선수들을 수세에 몰아넣었다.

경기시간 67분경 3번 허은별선수의 머리로 차는 공이 또다시 성공된데 이어 83분경에 9번 선수 가 종정현으로 1골을 넣는 승리를 거두었다.

경기시작 7분경 공격마당 왼쪽으로 공을 몰고 들어가던 11번 선수 가 문앞으로 넘겨준 공을 13번 위정심선수가 돌입하면서 단번에 차넣어 골문을 열었다.

후반전에 들어서도 우리 팀의 파도식공공이 계속되는 속에 경기시간 57분경과 64분경에 11번 리예경선수가 멧있게 연속 득점하였다.

이날 경기에서 미더운 우리 여자축구선수들

은 중국 홍콩팀을 5:0으로 이김으로써 우승후보팀의 면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경기시간 67분경 3번 허은별선수의 머리로 차는 공이 또다시 성공된데 이어 83분경에 9번 선수 가 종정현으로 1골을 넣는 승리를 거두었다.

경기시작 7분경 공격마당 왼쪽으로 공을 몰고 들어가던 11번 선수 가 문앞으로 넘겨준 공을 13번 위정심선수가 돌입하면서 단번에 차넣어 골문을 열었다.

후반전에 들어서도 우리 팀의 파도식공공이 계속되는 속에 경기시간 57분경과 64분경에 11번 리예경선수가 멧있게 연속 득점하였다.

이날 경기에서 미더운 우리 여자축구선수들

조에서 편승을 기록한 우리 여자축구팀은 1위로 다음단계 경기에 올라갔다.

경기시작 7분경 공격마당 왼쪽으로 공을 몰고 들어가던 11번 선수 가 문앞으로 넘겨준 공을 13번 위정심선수가 돌입하면서 단번에 차넣어 골문을 열었다.

후반전에 들어서도 우리 팀의 파도식공공이 계속되는 속에 경기시간 57분경과 64분경에 11번 리예경선수가 멧있게 연속 득점하였다.

이날 경기에서 미더운 우리 여자축구선수들

우리 나라 엄윤철 선수 금메달 쟁취, 세계신기록 수립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력기경기에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력기 56kg급경기에 출전한 우리 나라의 인민체육인 엄윤철선수가 우승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신준조선의 영예를 온 세상에 높이 떨쳤다.

이번 경기대회 력기경기에는 우리 나라와 타이, 까자흐스탄, 헝남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의 플러스에서 주체적인 경기전법과 기술을 련마하며 세계적인 력기장사로 성장한 엄윤철선수는 결승의 신심에 넘쳐 경기장에 나섰다.

풀어올리기에 128kg을 들

어울린 엄윤철선수는 주켜올리기에 특기를 살려 자기 몸무게의 3배가 넘는 170kg을 손쉽게 들어올림으로써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종합 298kg을 성공시켜 위대한 신권명장의 평도따라 세계를 향해 솟아오르는 영웅조선의 기상과 담력을 힘있게 시위하고 우승의 단상에 오른 우리 나라의 엄윤철선수에게 영예의 금메달이 수여되었다.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울리고 랑용색공화국기가 오르는 속에 엄윤철선수는 평양의 하늘가

를 우리러 삼가 승리의 보고를 드렸다.

엄윤철선수는 우승의 소감과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금메달을 쟁취한 순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제일먼저 안겨왔다. 그의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경기마다에서 면전연승할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첫 금메달을 쟁취한 엄윤철선수의 승리는 새로운 조선속도장조의 불길함이 부각조성될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악화된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개선분위기를 마련하자면 극도로 이른 반공화국비타살포행위와 같은 동족대결행동이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동족을 함부로 비타살포행위와 당국과는 무관한것처럼 변명해대고있는 것은 그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이다.

당국의 허가없는 말을 들어 놓을수 없는 《민통신》이북일대에서 비타살포가 감행될 때마다 괴뢰군부대들이 휘하있는 군사적보장조직들만 놓고보자.

괴뢰군부대들에서는 《풍선작전》이 벌어질 때마다 판화전원 경계부대들과 감시조소들에 비타살포시간과 장소는 물론 풍선형태와 색깔을 이르기까지 미리 통보해주는가 하면 《대북풍선단》소속 인간쓰레기들에게 살포방식까지 조연해주고있으며 우리 군대의 보복대응이 두려워 우리 속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준비된 포병부대들에 대기태세를 갖추는 데까지 내리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남고위급 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은 2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선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급선무는 동족사이 불신과 적대감을 조성하는 비타살포와 같은 심리모략행위들부터 당장 중지하는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지난 13일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급선무는 동족사이 불신과 적대감을 조성하는 비타살포와 같은 심리모략행위들부터 당장 중지하는것이다.

정와대 《국가안보실》에는 2차에 걸쳐 판화전원까지 발송하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저들이 《남북고위급접촉에서 이룩한 비타살포중지를 준수하고있다.》며 괴뢰군부대들과 판화전원 경계부대들과 감시조소들에 비타살포시간과 장소는 물론 풍선형태와 색깔을 이르기까지 미리 통보해주는가 하면 《대북풍선단》소속 인간쓰레기들에게 살포방식까지 조연해주고있으며 우리 군대의 보복대응이 두려워 우리 속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준비된 포병부대들에 대기태세를 갖추는 데까지 내리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남고위급 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은 2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선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급선무는 동족사이 불신과 적대감을 조성하는 비타살포와 같은 심리모략행위들부터 당장 중지하는것이다.”

반공화국 《풍선작전》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책임 회피는 철면피의 극치이다

북남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

하라는 식으로 그 수법까지 대추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극도에 이른 반공화국비타살포로 하여 북과 남사이 불화 불이 오는 군사적대결을 더는 피할수 없게 되었던 위기일발의 시각 그 장난감인 인간쓰레기들을 안방에 끌어들이며 먹자판을 벌려 놓고 반공화국비타살포행위를 진행시키는 행태를 혹독히 기억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비타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비타살포행위 《제제상투성》과 《현실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권리》때문에 《통제불능》이라고 고집하고 있는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때 《표현의 자유》가 있어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면 《제제상투성》의 무명을 쓰고 족쇄를 차야 하며 침략의 피수 맥아더의 동상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정의로는 집회가 《리적단체의 행위》로 매도되어 무자비한 탄압과 구속의 대상이 되고있는가.

반공화국비타살포를 일삼는 동족대결광신자들에게는 무제한한 환무대가 펼쳐지고 통일애국인사들에게는 감옥행이 차례지는것이 남조선당국이 말하는 《제제상투성》이고 《표현의 자유》란 말인가.

남조선당국의 전적인 비호와 도움이 없었다면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인간쓰레기들이 하늘무서운 울음 모르고 21일 오전 11시에 또다시 비타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언론까지 공개해대며 기승을 부려댈수 있었는가.

이 엄연한 사실앞에서 우리는 남조선당국에 반공화국《풍선작전》에 대한 책임을 한사코 부인해나설수 있었는가를 엄하게 따져묻지 않을수 없다.

하긴 《대통령의지》까지 꺼들며 이룩한 쌍방합의마저 《제제상투성》이니 《기본적권리》이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들이 리행할 업무조차 내지 못하는것을

남조선당국이 얼마나 무능한 《철면피》를 잘 알고도 남음이 있다.

동족에 대한 비방과 중상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신뢰를 조성하고 화해의 도를 닦아내는것도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의 최고준엄과 체제를 헐뜯고 비난하는 악랄한 힘담으로 일관된 비타살포를 살포하는것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가장 엄중한 적대행위이다.

우리가 제1차 북남고위급접촉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관계개선의 제1차적요구로 들고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남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정치인이라면,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단합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지성인이라면 그 무엇보다 판화개선에 유익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두팔걸고 나서야 할것이다.

대화가 진행되자면 신뢰가 조성되고 판화개선의 분위기가 싹트게 된다.

지금처럼 《제제상투성》을 구실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에 매달리면서 신뢰를 조성하고 판화개선에 유익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두팔걸고 나서야 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21일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비타살포 놀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부터 남남관계에 대한 비방과 중상에 매달리면서 신뢰를 조성하는것이 우선이다.

북남관계개선의 출로는 여기에 있다.

남조선당국의 전적인 비호와 도움이 없었다면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인간쓰레기들이 하늘무서운 울음 모르고 21일 오전 11시에 또다시 비타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언론까지 공개해대며 기승을 부려댈수 있었는가.

이 엄연한 사실앞에서 우리는 남조선당국에 반공화국《풍선작전》에 대한 책임을 한사코 부인해나설수 있었는가를 엄하게 따져묻지 않을수 없다.

하긴 《대통령의지》까지 꺼들며 이룩한 쌍방합의마저 《제제상투성》이니 《기본적권리》이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들이 리행할 업무조차 내지 못하는것을

남조선당국이 얼마나 무능한 《철면피》를 잘 알고도 남음이 있다.

동족에 대한 비방과 중상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신뢰를 조성하고 화해의 도를 닦아내는것도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의 최고준엄과 체제를 헐뜯고 비난하는 악랄한 힘담으로 일관된 비타살포를 살포하는것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가장 엄중한 적대행위이다.

우리가 제1차 북남고위급접촉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관계개선의 제1차적요구로 들고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남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정치인이라면,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단합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지성인이라면 그 무엇보다 판화개선에 유익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두팔걸고 나서야 할것이다.

대화가 진행되자면 신뢰가 조성되고 판화개선의 분위기가 싹트게 된다.

지금처럼 《제제상투성》을 구실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에 매달리면서 신뢰를 조성하고 판화개선에 유익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두팔걸고 나서야 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21일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비타살포 놀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부터 남남관계에 대한 비방과 중상에 매달리면서 신뢰를 조성하는것이 우선이다.

북남관계개선의 출로는 여기에 있다.

남조선당국의 전적인 비호와 도움이 없었다면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인간쓰레기들이 하늘무서운 울음 모르고 21일 오전 11시에 또다시 비타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언론까지 공개해대며 기승을 부려댈수 있었는가.

이 엄연한 사실앞에서 우리는 남조선당국에 반공화국《풍선작전》에 대한 책임을 한사코 부인해나설수 있었는가를 엄하게 따져묻지 않을수 없다.

하긴 《대통령의지》까지 꺼들며 이룩한 쌍방합의마저 《제제상투성》이니 《기본적권리》이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들이 리행할 업무조차 내지 못하는것을

남조선당국이 얼마나 무능한 《철면피》를 잘 알고도 남음이 있다.

동족에 대한 비방과 중상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신뢰를 조성하고 화해의 도를 닦아내는것도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의 최고준엄과 체제를 헐뜯고 비난하는 악랄한 힘담으로 일관된 비타살포를 살포하는것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가장 엄중한 적대행위이다.

우리가 제1차 북남고위급접촉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관계개선의 제1차적요구로 들고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남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정치인이라면,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단합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지성인이라면 그 무엇보다 판화개선에 유익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두팔걸고 나서야 할것이다.

대화가 진행되자면 신뢰가 조성되고 판화개선의 분위기가 싹트게 된다.

지금처럼 《제제상투성》을 구실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에 매달리면서 신뢰를 조성하고 판화개선에 유익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두팔걸고 나서야 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21일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비타살포 놀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부터 남남관계에 대한 비방과 중상에 매달리면서 신뢰를 조성하는것이 우선이다.

남조선당국의 전적인 비호와 도움이 없었다면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인간쓰레기들이 하늘무서운 울음 모르고 21일 오전 11시에 또다시 비타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언론까지 공개해대며 기승을 부려댈수 있었는가.

이 엄연한 사실앞에서 우리는 남조선당국에 반공화국《풍선작전》에 대한 책임을 한사코 부인해나설수 있었는가를 엄하게 따져묻지 않을수 없다.

하긴 《대통령의지》까지 꺼들며 이룩한 쌍방합의마저 《제제상투성》이니 《기본적권리》이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들이 리행할 업무조차 내지 못하는것을

남조선당국이 얼마나 무능한 《철면피》를 잘 알고도 남음이 있다.

동족에 대한 비방과 중상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신뢰를 조성하고 화해의 도를 닦아내는것도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의 최고준엄과 체제를 헐뜯고 비난하는 악랄한 힘담으로 일관된 비타살포를 살포하는것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가장 엄중한 적대행위이다.

우리가 제1차 북남고위급접촉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관계개선의 제1차적요구로 들고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남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정치인이라면,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단합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지성인이라면 그 무엇보다 판화개선에 유익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두팔걸고 나서야 할것이다.

대화가 진행되자면 신뢰가 조성되고 판화개선의 분위기가 싹트게 된다.

지금처럼 《제제상투성》을 구실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에 매달리면서 신뢰를 조성하고 판화개선에 유익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두팔걸고 나서야 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21일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비타살포 놀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부터 남남관계에 대한 비방과 중상에 매달리면서 신뢰를 조성하는것이 우선이다.

북남관계개선의 출로는 여기에 있다.

남조선당국의 전적인 비호와 도움이 없었다면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인간쓰레기들이 하늘무서운 울음 모르고 21일 오전 11시에 또다시 비타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언론까지 공개해대며 기승을 부려댈수 있었는가.

이 엄연한 사실앞에서 우리는 남조선당국에 반공화국《풍선작전》에 대한 책임을 한사코 부인해나설수 있었는가를 엄하게 따져묻지 않을수 없다.

하긴 《대통령의지》까지 꺼들며 이룩한 쌍방합의마저 《제제상투성》이니 《기본적권리》이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들이 리행할 업무조차 내지 못하는것을

남조선당국이 얼마나 무능한 《철면피》를 잘 알고도 남음이 있다.

동족에 대한 비방과 중상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신뢰를 조성하고 화해의 도를 닦아내는것도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의 최고준엄과 체제를 헐뜯고 비난하는 악랄한 힘담으로 일관된 비타살포를 살포하는것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가장 엄중한 적대행위이다.

우리가 제1차 북남고위급접촉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관계개선의 제1차적요구로 들고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남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정치인이라면,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단합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지성인이라면 그 무엇보다 판화개선에 유익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두팔걸고 나서야 할것이다.

대화가 진행되자면 신뢰가 조성되고 판화개선의 분위기가 싹트게 된다.

지금처럼 《제제상투성》을 구실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에 매달리면서 신뢰를 조성하고 판화개선에 유익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두팔걸고 나서야 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21일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비타살포 놀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부터 남남관계에 대한 비방과 중상에 매달리면서 신뢰를 조성하는것이 우선이다.

북남관계개선의 출로는 여기에 있다.

남조선당국의 전적인 비호와 도움이 없었다면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인간쓰레기들이 하늘무서운 울음 모르고 21일 오전 11시에 또다시 비타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언론까지 공개해대며 기승을 부려댈수 있었는가.

이 엄연한 사실앞에서 우리는 남조선당국에 반공화국《풍선작전》에 대한 책임을 한사코 부인해나설수 있었는가를 엄하게 따져묻지 않을수 없다.

하긴 《대통령의지》까지 꺼들며 이룩한 쌍방합의마저 《제제상투성》이니 《기본적권리》이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들이 리행할 업무조차 내지 못하는것을

남조선당국이 얼마나 무능한 《철면피》를 잘 알고도 남음이 있다.

동족에 대한 비방과 중상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신뢰를 조성하고 화해의 도를 닦아내는것도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의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더욱 빛나는 민족문화유산—수인화

수인화! 먼 옛적부터 전해오는 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이 독특한 미술형식은 로동당시대에도 편편히 이어져 주체미술발전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도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열화같은 민족애, 인민사랑의 손길이 역력히 깃들어있다.

주체 73(1984)년 9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인화를 발전시키는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때로부터 30년세월이 흘렀다. 이 시각 못 잊을 력사의 나날들이 더욱 가슴뜨겁게 떠오른다.

수인화는 조선회화 같은 회화작품을 원작과 똑같이 종이에 찍어내는 독특한 그림이다. 다시말하여 물체색을 쓰는 나무판화기법을 이용하여 주로 조선회화작품을 비롯한 회화작품들을 종이에 찍어낸 그림을 말한다.

수인화는 현대인쇄기술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색채, 붓자리의 효과를 훌륭하게 나타내도록 색채 붓으로 직접 그린 원작과 똑같이 생동한 느낌을 준다.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한것을 특징으로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술형식인 조선회화가 가지고있는 선명성과 간결성을 그대로 재현하는 수인화는 오랜 세월이 흘러간 오늘에 와서도 우리 인민이 이루어놓은 우수한 미술유산들을 그대로 생동하게 형상하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수인화는 우리 민족의 문화재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로동당에 보관되어있는 고려시기의 《팔만대장경》에 새겨진 그림들이 모두 수인화기법에 의한 창조물이라는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수인화의 오랜

력사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이처럼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인 수인화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민족애와 과학적인 통찰력에 의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미술의 한 종류로 발전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명철하게 밝혀주신 수인화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오랜 세월을 거치오며 발생발전한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인 수인화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과 예술형식의 미학적인 의미를 더욱 풍부하고 시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명철하게 밝혀주신 수인화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오랜 세월을 거치오며 발생발전한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인 수인화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과 예술형식의 미학적인 의미를 더욱 풍부하고 시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이런데로부터 오랜 력사와 전통을 이어오던 수인화는 사람들의 관심밖으로 밀려나 력사적인 유물로만 남아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 나라의 미술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술부문에서 수인화를 시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켜나간다는데서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주체 54(1965)년 3월 11일 조선회화발판회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17세기에 창작된 조선회화 《통을 낚는 사람》과 19세기에 창작된 조선회화 《모란과 닭》을 복제한 수인화를 보여주시고 원화와 똑

같다고, 수인화는 확실히 좋은 미술형식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셨다. 그러시면서 수인화를 다시금 주의깊게 살펴보시며 앞으로 문화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인민들의 미의식이 높아지고 의미깊게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명철하게 밝혀주신 수인화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오랜 세월을 거치오며 발생발전한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인 수인화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과 예술형식의 미학적인 의미를 더욱 풍부하고 시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이런데로부터 오랜 력사와 전통을 이어오던 수인화는 사람들의 관심밖으로 밀려나 력사적인 유물로만 남아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 나라의 미술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술부문에서 수인화를 시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켜나간다는데서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이런데로부터 오랜 력사와 전통을 이어오던 수인화는 사람들의 관심밖으로 밀려나 력사적인 유물로만 남아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 나라의 미술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술부문에서 수인화를 시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켜나간다는데서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주체 73(1984)년 9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인화를 발전시키는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때로부터 30년세월이 흘렀다. 이 시각 못 잊을 력사의 나날들이 더욱 가슴뜨겁게 떠오른다.

는 기념비적창작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나서 새로 창작한 수인화작품들도 몸소 보아주시었다.

이날 수인화작품인 《참새》, 《진달래》, 《참새》를 주의깊게 보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인화가 괜찮다고, 참새와 진달래, 참새를 그린 수인화가 아주 좋다고, 진짜 원화같다고 만족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사실 그때 전시기 작품들은 오엔만엔 처음에 형성하다나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점한점의 작품을 보시면서도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의도가 어떤 작품들이 창작되었는지 그 정도 기쁘시어 이렇듯 파분한 치하의 말씀을 주셨던것이였다.

잠시 쉰은 사색에 잠겨서인 그이께서는 수인화는 원화가 적게 들고 원화보다 형상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수인화는 원화를 그린 다음 그것을 나무에 새겨 도장을 찍는 식으로 축적적으로 되므로 품도 적게 들것이라고, 수인화는 한번 해볼만 한 미술형식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확실히 수인화는 직접 붓으로 그린 원화와 똑같은 생동한 느낌을 나타내는것으로 하여 품도 원화가 적게 들어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인화창작실에 꾸려놓고 수인화를 많이 만들어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도록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다.

원래 수인화는 나무판의 찍을 효과를 미리 예견하고 원화의 색채와 붓자리 등을 종류별로 갈라내어 본따 그린 다음을 각각 새기고 원화에서 쓴것과 같은 종이와 색감으로 물기를

맞추어가며 찍어낸다. 그렇기때문에 수인화를 찍어내는 과정은 단순히 기계적인 생산이 아니라 섬세하고도 정교한 예술적기교를 요구하는 하나의 예술창조 과정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수대창작사에 수인화를 창작할수 있는 미술가, 기능공들이 얼마 없다는것을 아시고 평양시와 지방에서 수인화를 만들줄 아는 미술가들과 기능공들을 받아들여 수인화를 발전시키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후에는 만수대창작사에 수인화창작실을 새로 꾸리는 사업과 창작사 체제가 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시며 오랜 민족적 전통과 력사를 가진 수인화를 새롭게 발전시켜나간다는데서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이 있어 수인화는 미술의 여러 종류와 함께 당당히 자기의 독특한 기법적 특성을 살리며 새롭게 발전할수 있었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유구한 력사와 문화도 보석처럼 빛날수 있을것을 민족문화유산—수인화에 비친 사연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거니 그래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한 민족의 어버이이시라고 목메어 부르느것이였다.

오늘 정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예지와 정력적인 명도애에 의하여 날로 개화발전하는 주체미술의 화원속에서 민족의 자랑인 수인화도 더욱 발달하여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사회주의문명으로부터 아름답게 가꾸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만수대창작사 실장 공훈예술가 조 동 해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인화창작실에 꾸려놓고 수인화를 많이 만들어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도록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다.

원래 수인화는 나무판의 찍을 효과를 미리 예견하고 원화의 색채와 붓자리 등을 종류별로 갈라내어 본따 그린 다음을 각각 새기고 원화에서 쓴것과 같은 종이와 색감으로 물기를

제 14 차 평양국제영화축전 련일 진행

지난 17일에 개막된 제14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련일 진행되고있다. 축전이 진행되는 문화예술포럼, 평양국제영화회관과 대동문영화관, 개신영화관 등 시네마관들에서 많은 근로자들, 영화애호가들, 외국 손님들이 출품된 영화들을 관람하고있다. 이번 축전에서는 최근년간 여러 나라와 국제기에서 제작한 장

편에 출연 화들과 기록, 단편, 만화영화들이 상영되고있으며 지난 기간 여러 국제영화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영화들도 특별상영되고있다.

영화들 가운데는 그리스에 촬영한 《라 타격》, 도이칠란드에 촬영한 《나의 아름다운 나라》, 로련에 촬영한 《달에 오르라》, 메히코에 촬영한 《하

의 두 나그네》, 필리핀에 촬영한 《바키우》, 벨스카에 촬영한 《아버지의 자전기》, 벨루갈에 촬영한 《제4경찰관구》, 오스트랄리아에 촬영한 《로케트》, 영국에 촬영한 《바른 처녀들》, 이란에 촬영한 《영화에 대한 꿈》, 이탈리아에 촬영한 《로렌에 촬영한 《달에 오르라》, 메히코에 촬영한 《하

예술영화 《사촌형제들》 등이 있다. 각인 시대 배경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영화들은 온갖 지배와 억압, 사회적 불평등을 반대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을 예술적화폭으로 생동하게 펼쳐 보이고있다.

영화가상영은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행복에 넘쳐 휴식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는 근로자들 -개신청년공원유희장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가을철 잔디밭관리를 잘 하려면

경에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도시와 농촌의 주민지구와 협곡주변, 공원들에는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많이 심어 생명이 보이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가을철은 잔디가 자라는데 제1차 적합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잔디밭관리를 잘하면 장마와 더위로 하여 쇠약해진 잔디가 빨리 회복되고 높은 활력을 가지게 될뿐 아니라 겨울나기준비도 충분히 갖추게 된다.

가을철 잔디밭관리에서는 먼저 장마철에 죽거나 손상된 부분들에 대한 보수작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잔디밭조성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씨뿌리기를 할 때에는 제비충을 과학기술적으로 제거하여 대량으로 만들어야 하며 씨뿌림량을 정확히 지켜 잔디밭의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씨앗이 트면 쇠똥먼 무조직천을 벗기고 밭이 마르지 않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물을 주어야 한다. 잔디밭이 2매정도 되면 반드시 비료를 주어야 하며 그후에는 10~15일주기로 주면 된다. 잔디밭 1㎡당 복합비료인 경우에는 5~10g, 요소비료인 경우에는 5g정도 주며 여러 가지 칼질제와 성장촉진제를 배합하여 주어야 한다. 잔디밭관리를 잘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물관리이다. 물은 조급액 자주 주지 말고 5~10일을 주기로 1㎡당 10~15L정도씩 충분히 주어야 한다. 특히 가을철에는 린, 카리비료를 주는것이 좋다. 그래야 겨울나기 준비를 원만히 갖추게 된다.

잔디깎기를 잘하여야 한다. 10월말~11월 중순에 잔디의 생장이 멎기 한주일전(하루 평균기온이 5℃정도 될 때)에 잔디를 깎아야 한다. 그때야 잔디밭의 녹색유지기간을 길고 잔디의 겨울나기에 유리하다.

잔디병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잘하여야 한다. 가을철에는 녹병이나 동전마름병, 딱기루병 등이 발생할수 있다.

이러한 병을 예방하려면 잔디밭의 지형조건을 잘하여 잔디밭의 통풍조건을 개선해주어야 하며 과습한 조건을 지어주지 말아야 한다. 일단 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만조제를 비롯하여 해방한 농약으로 구제해야 한다.

잔디밭에 비료를 제때에 주어야 한다. 10~15일을 주기로 잔디밭 1㎡당 복합비료인 경우 5~10g, 요소비료인 경우 5g정도 주어야 한다. 특히 가을철에는 린, 카리비료를 주는것이 좋다. 그래야 겨울나기 준비를 원만히 갖추게 된다.

복색견주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주는 미미적향적이고 건축의 건전한 지속발전은 목표로 하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기구의 자외선위기의 심각성과 생태환경보호의 중요성으로부터 세계적인 범위에서 복색견주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치하여 건축부에서 복색견주 개발사업이다. 복색견주는 지구온난화를 막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환경오염이 없는 생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을 말한다.

복색견주의 기본특징은 사람과 환경을 다같이 중시한다 라는데 있다. 복색견주는 사람과 자연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초하여 탄생되었다.

건축물의 형태적완성이 최종적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무하는가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바로 복색견주의 사명이다.

국가과학원 건축연구소 박사 고 명 철

얼마전 우리는 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신천사슴목장을 찾았다.

바나나, 소나무, 참나무, 아카시아나무 등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는 산속의 사슴목장은 마치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 하였다. 이곳에 흐르는 물과 그리고 보기 좋게 세운 아담한 돌집들도 류다 른 정서를 자아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국가의 모든 시책이 근로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되고 사회의 모든 재부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돌려지고 있습니다.》

목장지배인 리희철동무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는 지난 기간 목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사슴마리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에서 거둔 자랑한 성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온 나라의 곳곳마다 사슴목장이 세워지게 된 사연을 들려주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어느 한 지역의 인민들은 여러마리의 야생사슴들을 정히 울리었다.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것을 중차로 하여 더 많은 사슴을 번식시켜 삼천리강산에 사슴떼가 울릴수 있게 하고 귀중한 약재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것이 자신께서 바라시는 소원이

사슴떼 흐르는 아름다운 산천

신천사슴목장을 찾아서

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언제나 마음의 첫 자리에서 조국과 인민을 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복방의 깊은 산골에 사슴목장을 건설되였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사슴목장이 흐르게 되었다.

지배인은 황해남도에서도 사슴목장을 할수 있다고 믿음을 안겨주신 절세위인의 다정한 사랑이 있었기에 이런 훌륭한 사슴목장이 세워질수 있었다고 절절히 말하였다.

이 어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제2작업반원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여기에는 백수십마리의 사슴들이 있었는데는 지 몇달밖에 안되는 새끼사슴들도 있었다. 방목지에 나간 어미사슴을 기다리며 대문소란 나 도 귀를 쫓듯 새우는 새끼사슴들의 모양은 참으로 귀여웠다.

수사 송영철동무는 우리에게 사슴의 일반특성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

사슴은 대체로 몸길이가 90~160cm이고 몸질량이 90~130kg인데 털갈이는 한해에 두번 여름과 겨울에 한다고 한다. 여름에는 붉은발색이며 등갈을 따라 검은 줄이 나있고 몸양옆쪽에 흰털무늬가 나있어 아름다우며 겨울에는 제멋대로 털이 헝클어지는 희미해진다. 사슴이 좋아하는것은 어떤 풀



안고 그들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슴 한마리를 찾기 위해 수십리길을 걷기도 하였고 벼랑을 뛰어오르느라 신발이 터져나가고 발이 통통부어오를 때에도 방목을 중단하지 않았다. 한생애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료작업반 반장 문형남동무는 우리에게 말하였다. 《아무리 힘들어도 250여마리나 되는 사슴들이 산안에 떼지어 다니는것을 보면 절로 마음이 흐뭇해지곤 합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저녁노을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오늘날도 나라에 사슴목장 속실거리게 해야 한다고 하신 절세위인의 높은 뜻을 충성되게 만들어가는 이곳 목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애국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어주고 산기슭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노을이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 옥 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특이한 생활풍습

를 만났다가 배가 뒤집혀질뻔 했다던 그것은 순조롭게 얻은것보다 가치가 더 크다.

그리고 다른 섬에 가서 대리석을 얻어올 때 그의 주민들과 충돌을 했다던 그런 경우도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이 섬에서는 지금 대리석돈이 수천개나 류통되고있으며 그 개개의 가치는 서로 다르다.

어떤 큰 대리석은 몇사람의 힘으로도 움직이지 못하므로 오래동안 한자리에서 놓여있지만 다시 주인이 있다.

혹시 주인이 바뀌어지더라도 그 위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따라 날자가 갈지 않은것으로 하여 설을 쇠는 날도 역시 다르다.

뉴질랜드: 추운 지대에 생활하는 에스키모인들은 기후조건에 따라 설날을 결정하는데 그들은 습관적으로 첫눈이 내리는 날을 선택하는 시작으로 정한다.

달살: 수리아의 농촌사람들은 9월에 등근달이 뜨는 날을 새해의 시작으로 간주하는데 여기에오는 수확의 계절을 즐겁게 보내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철새살: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 사람들은 철새로 날자를 계산하는데 첫 철새가 하늘을 날아오를 때를 새해로 정한다.

호박을 던지는 설날: 남아프리카의 일부 종족들은 한해농사의 수확이 새해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환회에 넘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가운데 풍자가 잘 어울리는 1월 1일 또는 양력 1월 1일로 정하고 있지만 일부 나라들과 지역들에서는 력사의 리용과 풍속, 계절에

다만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다.

